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만료

1746억원 소비... 대부분 일상생활 밀접 분야 사용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어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1,746억원이 도내 골목상권 곳곳으로 흐르며, 코로나19로 막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9월 30일자로 만료됐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 180만1,412명 중 176만4,751명인 98%가 지원금 카드를 받았으며, 이 중 99%인 1,746억원이 도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의 재난지원금 주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 48%, 식당 20%, 주유소 8%, 병원 6% 4개 업종에서 총 1,415억 원(81%)을 차지했다. 그 외에 학원 3%, 이미용 2%, 운동용품 2%, 학원 1% 등 업종에서 331억 원(19%)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일상생활

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부분 사용되며, 당초 전북도의 취지로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피로도 해소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률과 사용률 추이를 보면, 지급 개시한 7월 5일부터 1주 만에 122만여명(68%)이 받았고, 2주 차에 90%인 161만여 명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카드 사용률은 사용 개시 2주 차만 에 916억원(51%), 1개월(8월 6일)만 에 1,306억원(77%)이 사용됐다. 당초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토록 홍보할 예정이었으나, 여름휴가 전에 수령과 사용 상당 부분을 소화한 것이다.

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서도 그 힘

을 톡톡히 발휘했다. 지난 7월 중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폭은 3.5로, 전국평균 하락 폭인 7.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소비 심리회복의 완충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 지난 7월 중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북지역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 폭은 3.5로, 전국평균 하락 폭인 7.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명한 지역경제에 회복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넘어 예전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지역경제 또한 우상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방공무원 위한 정책 마련·제도 개선 최선”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 정책자문위원 위촉

양성빈 전 전북도의회원이 13일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정은에 위원장)로부터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에 설립했다.

정책자문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조건 개선을 위해 정책제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 협력하는 일을 한다.

양 전 의원은 의원 시절 공상 소방공무원, 유족,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숨진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며, 유족과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또한,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크게 부담을 줬던 3조 2교대(주야 교대



양성빈 전 전북도의회원이 13일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정은에 위원장)로부터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

근무) 근무방식을 3조 교대제(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해 현

장에 반영하게 한 성과가 있다.

아울러, 장수군 법안면에 빈암 119 지역대를 준공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고, 계남면에 '소방안전 타운'을 유치, 도 단위 특수재난 대응 인력과 전문 장비의 효율적 관리·조정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소방안전 타운은 오는 2023년까지 17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계남 양돈 단지가 있던 자리에 전라지일빌,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대, 소방정대, 소방교육대 등의 조직과 시설로 설치·운영한다.

양성빈 전 도의원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대아수목원, 찾아가는 숲해설·유아숲체험 서비스 제공

전북도 대아수목원이 오는 11월 5일 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해설·유아숲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아수목원은 13일 수목원 내방객에 한해 운영 중인 숲체험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유아숲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숲해설'은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해 숲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 숲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유아숲체험'은 유아(5~7세)를 대상으로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



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오감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도내 산림과 공원, 학교, 유치원 등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상별 맞춤형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호상 기자

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프로그램 예약은 전화(063-280-4590) 또는 홈페이지(forest.jb.go.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아수목원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황상국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에게 찾아가는 숲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지친 심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수요에 맞춘 고품질의 산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

전북도, 환경기초시설 12개소 유류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연내 완료

전북도가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내 유류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온실가스 없는 탄소중립에 한층 더 다가가고 있다.

도는 환경기초시설 내 유류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하·폐수처리시설, 정수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 이미지를 덜고, 태양광을 통

한 에너지도 생산하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15개소 유류부지에 2,70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총 1,308톤의 CO2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개 시·군, 12개 환경기초시설에 총발전 용량 1,809kW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해 약 연간 1,139.67톤의 CO2를 감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7개소가 준공 완료됐고, 나머지 5개 시설도 지속 추진중에 있어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이어,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68%가 증가한 규모 32억 원이 확보 될 것으로 관측되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 영향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지속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국철도공사, 2020년 장애인고용부담금 5억5800만원 납부

김윤덕 의원, "장애인 적합 일자리 마련으로 상시채용의 길 만들라" 주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른 고용실적을 갖추지 못해 작년 한 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5억5천8백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지난 12일 열린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관의 장애인 상시채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상시고용 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52명이었던데 비해, 연간 518명의 장애인 채용 미달이 발생해 5억5천 8백만 원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의무고용 부담금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일관성 있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 중 하나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의무고용을 꼭 맞추서 채용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지자체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 '세종'·'전북' 최다

코로나19 발생 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40개 지자체(제주 미제출)로부터 제출받아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질병휴직자는 지난 2019년 2,893명에서 2021년 4,027명(7월 기준)으로 평균 39.2% 증가했

다.

2019년 대비 가장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35.0%)과 전북(34.93%)으로 집계됐으며, 경남, 부산, 서울, 경북, 인천 역시 평균 질병 휴직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부평구(6명→80명)가 2019년 대비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용산구(6명→24명), 강원도 횡

성군(3명→11명), 충남 보령시(5명→19명)가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후 질병 휴직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선 보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